

정 총리 재보선 후 대선 준비…후임 박지원·김부겸 ‘물망’

뉴스 초점

이달 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의당과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사퇴와 후임 국무총리의 임명은 차기 대선 정국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 총리의 사퇴에 따른 대선 행보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4·7 재보선 이후, 문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차기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등의 절차 등을 거쳐 4월 말 여의도로 복귀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지난 달 30일 정 총리가 광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

정세균 총리, 광주의 오랜 숙원 공항문제 해결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박지원 국정 장악능력·소통 탁월, 김부겸 차기 대선 영남 아우르기

성한 것도 대선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전에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이 마련된다면 정 총리로선 광주·전남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 출신의 정 총리가 광주·전남의 지지를 얻는다면 호남 민심을 대선 도전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남 출신의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전북 출신인 정 총리의 대선 행보가 겹친다는 점이다. 일단 4·7 재보선 결과가 두 사람의 대선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정 총리가 대선 행보를 통해 낮은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 올리느냐도 관건이다. 정치권에선 정 총리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당내 친노·친문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같은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7 재보선 결과는 당내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기에 정 총리의 대선 행보가 겹치면서 5월 당권 구도는 물론 대선 경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정 총리의 사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총리 교체가 현실화된다면 문재

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은 물론, 신속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이끌 ‘경제 전문가형 총리’를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흥남기 경제 부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정 간의 갈등 등으로 피로도가 클데다 민심이 인정할 만한 경제통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 라인이 모두 재정비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산파역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박 원장은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정 장악 능력이 강한데다 정치권과의 소통도 탁월하다는 점에서 임기 막판 총리 역할에 적합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누수현상을 막고,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박지원 총리 카드가 유효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민통합에 방점을 두고 대구 출신으로 행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을 낙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발탁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영남권을 우수롭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주도한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4·7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그 여파가 상당할 수 밖에 없어 민심을 수습하고 대선 정국을 주도하기에는 여성 총리가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 활짝 핀 ‘미술의 봄’

1일 공식 개막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오토바이 헬멧, 조개껍질과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에모 데 메데이로스의 작품 ‘하이퍼리시비’를 감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철저한 방역 수칙이 지켜진 가운데 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계속된다. /최현애 기자choi@kwangju.co.kr

국내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이달 인증앱 개통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이른바 ‘백신 여권’을 국내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여권 혹은 그런 카드를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

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른 국가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되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되지 않도록 했다.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이달 안에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에는 “국제적인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이날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접종을 연로한 부모님께 드리는 ‘백신효도’라고 생각해달라”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글로벌모터스, 5일부터 시험생산 가동

공장건설·설비설치 완료

9월에 자동차 양산 목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공장건설과 설비설치, 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일부터 시험 생산에 돌입한다. 2014년 6월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만이다.

1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오는 5일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공장, 조립공장 순으로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 공장별로 시험 생산 돌입 일정이 다른 것은 자동차 생산 과정이 차체→도장→조립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시험 생산은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실제 판매할 차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차를 생산한다. 이 차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시험 생산은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계속되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9월 중 양산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기술적 경력사원 53명과 베테랑 서포터즈 5명, 기술직 신입사원 186명을

선별했으며 현재 137명의 기술직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이들 137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380여 명의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고, 양산 1교대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반직 경력사원과 신입사원도 150여 명을 채용했다. 신규 고용 창출만 520여 명에 이른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인력 확보와 함께 차체 공장, 도장공장, 조립공장 등 3개 공장의 설비설치 작업을 끝냈으며, 시운전도 마치는 등 생산 준비 시스템을 모두 갖춘 상태다.

가장 먼저 시험 생산에 돌입하는 차체 공장은 이를 그대로 차체를 만드는 곳으로, 자동차의 기본 뼈대를 갖추는 작업을 한다. 주로 용접을 담당하는 로봇 118대와 인력 29명이 근무한다. 도장공장은 차의 색상을 입히는 과정으로 로봇 38대와 인력 82명이 투입된다. 특히 도색 과정에서 침가하는 물질인 기존 신나 대신 인체에 해가 없는 물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차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조립공장은 완성차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로 엔진 등 차의 각 부품을 조립해 완벽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어 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 지원군 광주공공배달

04 월
07 월
서비스 개시

“광주공공배달과 함께 착한 소비에 동참해요.”

증개수수료 2%

가입비 無 광고비 無

가맹점



<http://광주공공배달.kr>
가맹점 신청

광주공공배달 - 민간배달앱 증개수수료 차액 비교표		
증 개 수 수 루	매 출 액	
	₩3,000,000원	₩1,000,000원
A민간배달앱	6.8%	₩204,000
B민간배달앱	12.5%	₩375,000
광주공공배달	2%	₩60,000
증개수수료 차액	₩144,000 ~ ₩315,000	₩48,000 ~ ₩105,000

신청기간 2021년 02월 ~ 상시모집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신고증

10% 할인받은 상생카드로 온라인 결제까지!

소비자



위메프오 앱 설치 후 이용

위메프오 앱 다운로드

메뉴선택

주문결제

문의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960-2632 | 고객센터 1833-4866 | <http://광주공공배달.kr>

광주공공배달은 배달 앱 시장의 높은 증개수수료를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주문배달 서비스입니다.